

AIDS 감염인들의

생사생부!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정보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HIV/AIDS 특집 2~4면

Bush Lies! People Die!!

3만의 거대한 저항의 물결에 동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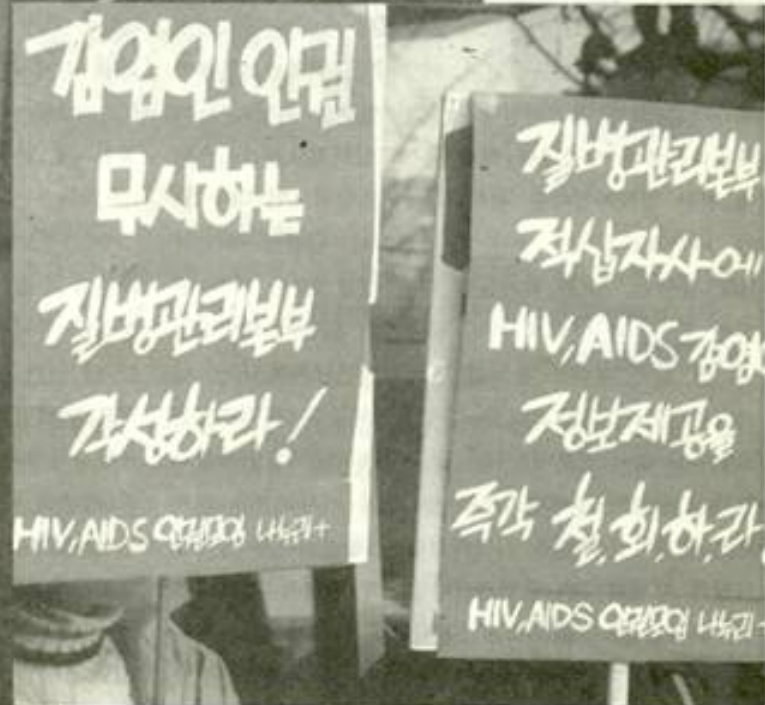
6, 7면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권리찾기를 위해 노력한 한 해

8, 9면

독자편지 / 인권운동과 나

11, 12면



보건복지부는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 을 즉각 철회하라!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 www.aidsmove.org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법정 전염병 환자의 혈액 관리를 위해 11월부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제공하여 적십자사의 혈액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겠다는 것이다.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가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공개질의서 답변에 의하면 HIV 감염인, AIDS 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는 다른 전염병 환자들과 다르게 이미 넘어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현실을 분노한 한국감염인협회(KARF), 한국감염인연대(KANOS) 등 감염인단체들은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전보네트워크 등 정보인권, 의료단체들과 함께 11월21일 질병관리본부 앞 항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하였다. 질병관리본부 방역센터장과 보건복지부 혈액관리팀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지난 12월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의한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계획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222명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의견이 무엇인지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HIV 감염인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병력자 정보제공방안을 철회하고 HIV 감염인 / AIDS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대한적십자사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수집/이용의 제한과 수집/이용 시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수혈감염을 막는 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 즉, 부적절하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개인의 병력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005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수혈감염사고 역시 항체미형성기의 혈액에 의한 것으로 HIV/AIDS 병력자 정보와는 아무 상관없다. 또한 법정전염병 병력자의 혈액은 현재 혈액검사시스템을 통해 감염여부가 판정되므로 굳이 개인의 병력 정보가 사전에 제공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미 HIV 감염인 정보를 제공받는 대한적십자사조차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가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면 '법정전염병 병력자에 대한 전산 관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필수불가결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정보가 제공될 경우 병력자들의 사생활을 보호받기란 매우 어렵다. 헌법 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HIV/AIDS의 감염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생활의 내용 및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1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정보제공 그 자체가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수혈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 병력을 가지고 있는 병력자들이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로' 전염을 시키기 위해 헌혈을 할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24일 보건복지부와 면담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말했듯이 그동안 HIV양성반응자들에 의한 혈액사고는 단 한건도 없었다. 결국 이것은 국가정책 스스로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여 감염인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더욱 후퇴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자신들의 혈액안전관리 부실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HIV 감염인들이 마치 고의적인 전염자처럼 편견을 조장하는 비열한 대책이다.

지금까지의 수혈감염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시스템이 부실한 탓에 발생했다. 혈액의 감염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염여부가 밝혀졌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수혈감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염인들의 개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현행 혈액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혈액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HIV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각 나라마다 익명검사와 익명보고체계를 갖출 것이 권장되고 있다. 즉, 검사를 받을 때에도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는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감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HIV 감염인의 정보 중 성별, 나이, 추정되는 감염경로 등 보건역학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들만을 수집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거의 모든 정보 뿐만 아니라 동거인 등의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 개인 정보에 대한 노출은 감염인들로 하여금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HIV/AIDS 감염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대한적십자사로 넘기는 지금의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법정전염병 정보제공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개인의 병력정보는 각종 의료관계법 및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다. 2003년 에이즈예방협회의보고서에 나오듯 HIV 감염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신분/병명노출(34.2%)이라는 점을 볼 때 개인의 병력정보 노출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다. HIV 감염인들은 자신들의 감염 사실이 공개되자마자 자신의 모든 사생활이 포기되어지도록 강요받고 있다. 직장에서의 해고는 물론 의료계의 진료거부,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외면이 시달려야 한다. 자신의 병력 정보는 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소중히 지켜져야 하는 인권이다. 보건복지부(정부)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AIDS 환자들이 인권을 말하기 시작하다!

정 올 -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2003년 한 감염인 단체가 발족할 때 초대
를 받아 찾아간 적이 있다. 10명 남짓한 감
염인들과 전주교 수녀, 신부님들이 자리한
그 자리에서 한 감염인에게 단체명에 '인권'
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가 하는 말이 모임 회원들과 발족하기 전
단체명에 대한 토론을 하고 여러 관계자들
에게 조언을 들었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 했
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사회가 가
지는 AIDS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감염인,
환자 스스로에게 나는 '비윤리적이고 성적으
로 문란한 사람'이라고 죄면울 걸고 자신의
병력으로 인해 가족,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현실은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용당 치러야
할 탓가로 여기게끔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인
권이라는 말이 난무하는 이 사회를 살면서
감염인, 환자들에게 '인권'이라는 말은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하는 금지된 언어와 같았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의 병력정보 제공
제외 철회를 위한 투쟁에 감염인, 환자들은
투쟁의 주체로 서기 시작했다. 비록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실물을 전혀 알
아볼 수 없게 행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
국감염인연대, 한국감염인협회, LOVE4ONE,
서울터 등 감염인 단체들은 질병관리본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당당히 모습을 드
러내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직접 준비해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질병관리본부
방역센터장과의 면담도 성사시켰다. 12월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
서도 10명 남짓한 감염인들이 참여하였고
거리캠페인과 단체회원들에게서 받은 222명
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매우 큰 성과
이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감염인 단체들의 적극성이
없었다면 3일 만에 222명을 모으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나누리+에 연대단체로 참여
하고 있는 동성애자인권연대는 12월1일 세
계 에이즈 날을 기념해 개최된 '감염인을 위
한 음악회'와 12월3일 '민중대회'에서 진정서
를 받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에
이즈 쟁점이 한국에서 형성된 적도 없고 여

전히 에이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
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
하기 때문이다. 현재 감염인 단체들은 김근
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과의
2차면담을 비롯해 또 다른 액션을 준비하고
있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는 대표를 제외
하고 비감염인으로 구성된 공동전선이다. 하
지만 2005년 꾸준히 감염인 단체들과의
접촉하며 '전료거부'에 관한 문제를 사회적
으로 폭로하였고 많은 감염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감염인 캠프 - 비록 관련단체가 준비하
기는 하였지만 -에도 참여하였다. 에이즈운
동의 불모지와 같은 한국에서 비감염인들의
헌신적인 에이즈 운동 건설 노력은 매우 효
과적이었다. 어쩌면 한국에서 감염인, 환자
들이 참여하는 에이즈 운동 자체가 불가능
했는지 모른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감염인
들에게 주운 겨울날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
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곤욕스러운 일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감염인들의 적극적인
연대는 그들을 꿈틀거리게 하는 계기가 되

었다. 감염인으로 살아오면 겪었던 차별의
경험과 그에 대한 분노가 끓기 시작했고, 인
권이라는 말을 당당히 구호로 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신들의 처한 현실을 토론했고
단체마다 회원들을 설득하는 지금의 모습은
앞으로 에이즈 운동이 성장할 수 있다는 희
망을 말하고 있다.

11월25일에 개최된 에이즈 토론회에서 한
국감염인연대 사무국장은 '병원을 생명수와
같다'고 하며 전료조차 거부당하는 현실을
폭로했다. 에이즈운동을 한국에서 성장시키
기 위해서는 '연대'라는 생명수가 필요하다.
병력정보 계획 철회를 위한 진정서에 비록
222명이 참여했지만 이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2천명이 되고, 2만명이 되었을 때 여
전히 숨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감염인들
은 자신의 인권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제
는 반격할 차례이다.

LGBT paper

AIDS 토론회-AIDS를 바라보는 동성애자의 입장 토론회 후기

지난 11월 6일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최로 "AIDS 토론회 - AIDS를 바라보는 동성애자의 입장"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운영하는 동
성애자 HIV/AIDS 예방홍보교육사업 'ISHAP'에서 1명씩 발제가 진행되었고, 참가자들과 토론이 오고갔다. 3면과 4면에서는 이 토론회에 참가한
레즈비언, AIDS감염인,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활동가들의 토론회 후기를 모아 실었다. _ 편집자 주

“에이즈를 바라보는 동성애자의 입장” 에이즈 토론회 가 남긴 것,

윤호재 _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대표

지난 11월6일 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
체 '친구사이'의 주최로 성소수자 운동진
영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이즈토
론회를 가졌었다. 필자의 기억엔 동성애자
단체들이 에이즈를 주제로 함께 모여 토
론회를 열었던 건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다. 2003년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소속의
동성애자 에이즈 예방 사업 팀 "ishap"의
등장으로 동성애자 단체들이 에이즈를 바
라보는 입장이 달랐기에 그 다음의 정세
를 확인 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충분
히 예상은 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성애 커뮤니티에
에이즈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대한
은 없이 문제만 제기한 자리였던 것 같아
내심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정 올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를 예방의
시각에서만 보고 다루어진다면 동성애 운
동이 에이즈 예방에만 머물 댈 수 있기에
우리가 더 크게 주장해야 할 건 동성애자
들이 에이즈에 취약한 환경에 내몰리는
반동성애 적인 사회 환경에 주목해서 동
성애자의 권리 찾기에 더 큰 소리를 내야
한다고 하였고 에이즈 탄생 초기에 동성

애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장치로 에이즈가
이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여전히 동성애자
억압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한재훈 부
대표는 단체들이 에이즈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로 연대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정부의 동성애자 고위험군 논리와
문제들을 지적은 하였으나 동성애자 예방
사업은 그래도 필요하며 동성애자 에이즈
고위험군 논리가 결국엔 강박관념에 빠지
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친구사이의 대표는 동성애 운동의 첫 시
작부터 에이즈 낙인을 받고 시작했음을
상기시키며 통계의 허점, 이성애자 집단의
허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에이즈 정책이
동성애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감염인의 인
권은 외면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ishap
의 김현구 팀장은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최대 피해자임을 강조하였고 통계에서 밝
히지 않는 개인의 성적채성 등을 감안하
면 에이즈, 동성애자 때어놓지 말고 같이
가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사실 단체들의 주장과 문제 지점은 다
울은 말이다.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예방을
위해 논문을 배포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

지만 정부가 동성애자의 권리나 인권보호
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에이즈에만
유독 코드가 맞아 예산을 지원해가며 온
돈을 뿌리고 동성애자전용 검진까지 서비
스 하는 건 뭔가 아귀가 안 맞는 것 같다
ishap의 김진, 예방 사업이 자료화 되어
정부에 넘어갈 경우 동성애자들의 성생활
을 통제 하려는 시도나 발상들이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다.
ishap의 김현구 팀장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장담을 하였고 한 재훈 부대표도 그
런 위험성을 단체들이 감시 하면 될 거
라 하였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먼저도 언급하였지만 질병관리본부와 보
건복지부가 통제와 관리중심의 에이즈 정
책을 진행하고 있고 동성애자 인권에 전
혀 관심이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김현구 팀장의 말처럼 자료가 보건복지부
에 의해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
다. 이미 2004년 보건복지부 국감에 의해
ishap의 자료는 이미 공개된 바 있다.

에이즈란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 치료거부, 편견에 의한 따돌림을 당
하고 있는 현실을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이

좀 더 주목하고 문제의 개선을 위해 한목
소리를 내주기를 바라는 내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자리였다. 앞으로
AIDS에 대한 공개토론이 일회성으로 그
치지 않고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감염인의 인권에 대한 얘기 역시 단체
들마다 하기는 했었지만 무엇보다 동성애
자 운동진영의 최대의 화두는 "동성애자
고위험군" 문제였던 것 같다. 참 오랫동안
동성애 진영이 즐기차게 논의 해온 문제
였던 것 같은데 왜 이 문제의 열띤 주장
이제 우리는 현상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
라 동성애자 에이즈 고위험군 규정을 뛰
어넘을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 동성애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뭐가
필요한지 어떤 논리가 필요한지 어떤 주
장들을 해야 할지 말이다.

그리고 명확한 건 정부의 에이즈 정책
은 엄연히 잘못된 정책들을 해결하기 위
해 동성애 단체들의 큰 힘이 필요하다.

LGBT paper

자기파괴적 행위

변진옥 _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AIDS 토론회-AIDS를 바라보는 동성애자의 입장"에 대한 글을 요청 받고, 나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질병요인들로 가득 찬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동성애자들도 다양한 건강문제를 갖고 있고 AIDS는 그 중 일부로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발생한 건강문제가 특정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그 건강문제의 원인이 그러한 특정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현대의 질병논리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더욱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한채운씨가 지적한 것처럼 '에이즈를 동성애자의 건강문제의 하나'로 취급한다는 명제에 동의하며 그리고 HIV감염의 위험에 취약한 '위험에 처한 집단'으로서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염려(한 채운, 2005. 동성애자, 에이즈, 정책: KSCRC의 시각과 입장을 중심으로, 친구사이 토론회 자료)도 공감하면서도 그래서 그녀에게 여전히 분명한 '곤돌과 안전한 성관계'강박의 존재를 느꼈기 때문이다.

폐암환자들에게 사람들은 병세에 대한 염려에 덧붙여 온건하게 흡연여부를 물어 묻고는 해서 그런 치명적인 "자기파괴적 행위"를 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자신의 동정의 양을 조절하거나 혹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위안 혹은 경중으로 삼기도 한다. 이 "자기파괴적"이라는 말은 다분히 인체의 면역시스템을 빗댄 것이다.(Deborah Lupton, 2003. Medicine as Culture: illness, Disease and the Body in Western Societies, SAGE

Publication) 우리 인체는 외부로부터 온 낯선 물질에 대해 방어기제를 작동해서 그것을 먹어버리거나 그에 대항하는 항체를 형성하고는 하는데, 간혹 인체의 면역반응 이상으로 자신의 조직을 외부물질로 취급해서 자기스스로를 공격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역반응 이상으로 인한 대표적인 예가 류마치스이다.

에이즈와 동성애자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에이즈에 대한 비난을 동성애자의 탓으로 돌리는 편견에 대한 가장 큰 해결책은 동성애자 내의 HIV감염인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이성애자들 사이에서의 발병률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낮아지는 것이라는 김현구씨의 논리(김현구, 2005. 에이즈 최대의 피해자 그들 중 하나. 남성 동성애자, 친구사이 토론회 자료)는 더욱더 강박적으로 들린다.

즉,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며 에이즈와 동성애를 동일시하는 낙인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동성애 사회내부에서 온건히 강제되는 곤돌과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강박은 그러한 행위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자기파괴적 행위"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도덕적 비난으로 읽은 것은 내 오해일 뿐인지.

나는 운명론자가 아니며 오히려 과학적인 질병의 전과정을 최대한 막고 주의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 중 하나이다. 그러나 동성애자에게 집중된 곤돌과 안전한 성행위는 동성애자들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이 강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무시해도 될 것인지.

담배값을 올림으로서 정부는 저소득층의 흡연율과 청소년의 흡연시작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예측했다.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후 저소득층과 최상위 소득층의 흡연율이 감소되었는데, 이 고소득층은 담배값을 올리지 않았어도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집단이었다. 그래서, 담배값을 올린 것이 저소득층의 흡연율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이 해롭다는 사실을 안 연후에 실제로 금연을 실천 할 수 있는 자원은 항상 기득권층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담배를 피우는 데에만 자원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끊는 데에도 역시 무형 유형의 자원이 필요하며 아마도 그 비용은 담배를 계속하는 피우는데 드는 비용을 상회할 수도 있다.

금연을 에이즈 예방행위로 빗대어 보자면, 동성애 사회의 사회적 지위와 구성원의 더 자유로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실천의 자원이 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강보호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그런 일은 한참 후의 일이고, 그 이전에 동성애 사회를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당장 곤돌을 보급하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의견도 가능하며, 설득력있게 들린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앞서 제기한 것처럼, 사회에서 에이즈 감염자에 "자기파괴적 행위"를 일삼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고착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고 지금상황에서 그것은 곧 동성애 사회에 그대로 투사될 가능성은 세 계산에 넣지 않느냐고 묻고 싶다.

LGBT paper

에이즈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정숙 _ 동성애자 인권연대 활동가

내가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들한테 공통적으로 받았던 질문이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주범이라는 것이다. 그럴 때 마다 난 에이즈에 대한 기초지식에서부터 감염경로까지 전문용어를 섞어가며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만의 병이 아님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려 노력한다.

그것은 동성애=에이즈 고위험군이라는 오랜 편견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레즈비언인 나 또한 이 고악한 꼬리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1월 6일 에이즈 운동을 하고 있는 몇몇 단체들과의 토론회가 있었다. 동성애자 공동체 안에서도 에이즈에 관한 관점이 서로 다르고 에이즈로 공격받은 자신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나름대로 각자의 의견을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성소수자와 이주노동자의 연대는 가능하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활동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그 약속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위원회는 지난 12월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아노아르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연행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위 결정에 항의하며 12월 6일부터 17일 현재까지 인권위원회 점거농성에 들어갔고 매일 영하의 추위와

한채운씨와 김현구씨의 발제는 여전히 에이즈라는 병은 하나의 질병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취약한 특정 성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곤돌과 안전한 섹스라는 강박중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큰 토론회였다.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로부터 공격받기 시작한 것은 81년 신자유주의의 선포장인 레이건 정부 때 등장한 '어떤 질병'에 관한 보고서에서부터였다.

70년대 반전운동의 성과로 소수자들의 권리쟁취와 성해방 운동으로 미국은 자유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당시 레이건 정부는 베트남전의 실패와 높은 실업률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보수주의적 가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가족제도가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육아와 교육을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중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신성한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에이즈라는 질병을 고스란히 동성애자에게 덧씌우며 권고문을 완전 무효화하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최하층의 삶을 강요받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면이 아닌 폭력적인 인간사냥과 추방, 단속을 취하고 있다. 아노아르 위원장 역시 보호 명령서 없이 표적단속으로 연행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바로 연행과정에서 벌어진 표적, 폭력연행 등 법무부의 불법적인 행동을 문제 삼으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 위치이다.

피워지면서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을 공격해왔다.

1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성애자는 에이즈로 공격받고 있다. 그러나 에이즈는 자본의 소외에서 오는 빈곤의 질병이며, 여전히 이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을 공격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성과 어린이의 질병이며, 이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와 동성애자들의 질병이다.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가족 이데올로기는 계속 강조될 것이고, 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동성애자들과 다른 소외된 그룹들도 언제나 공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 시켜 나가야 하며 동성애자들의 꼬리표인 고위험 집단이라는 논리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에이즈라는 질병은 빈곤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횡포에 반대하는 행동을 동성애자, 이성애자 감염인들과 함께 싸워야 할 것이다.

LGBT paper

우리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약자로 장애차별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해 꾸준한 연대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4월 에이즈로 이주노동자들이 공격받았을 때 출입국관리법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을 방어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이런 연대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성소수자들이 차별과 억압으로 활동을 전개할 때 그들은 우리의 연대활동을 기억할 것이다. 어쩌면 제일 선두에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80년대 영국 광부파업에 지지를 보낸 동성애자들로 인해 90년대 초반 개최된 퀴어퍼레이드에는 광부노조 지도자들이 성소수자 지지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에 동참한 아름다운 연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종과 성지향에 의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매우 같기 때문이다.



시카고신학대 테드제닝스 교수와 한국동성애자들과의 만남

정숙 _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테드 제닝스는 현재 시카고 신학대 신학과 교수이며, 신학과 동성애학을 강의하고 있다. 2001년 동성애자인권연대를 방문한 인연으로 감리교신학대에서 주최한 “한국교회와 동성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2001년 한국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도 함께 참여했다. 간담회는 제닝스 교수의 제안으로 마련되었고, 종교와 동성애에 관심있는 회원들과 연세대 신학과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 기독교에서 바라본 동성애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특히 동성애적 시각으로 본 구약과 예수와 요한의 행보에 대한 동성애적 해석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재밌었다.

기독교는 동성애에 대해 적대적인데,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수님이 신학과 동성애학을 동시에 강의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제닝스 교수는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커밍아웃을 하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레이건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동성애자들을 에이즈의 주범으로 몰아넣고 동성애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때부터 커밍아웃을 하고 동성애자를 방어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국은 기독교 우파 보수주의자들이 움직인다. 전쟁을 일으켜서 이득을 보려고하고,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자들 또한 이들이다. 우리는 이들에 맞서 이성애자와 함께 단결해야 한다.” 라고 당부하면서 다음에 또 한국을 오게 되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LGBT paper



동성애자인권연대 2005년 활동 돌아보기

장 권 _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2005년 동성애자인권연대는 한 일간지 특집기사 제목 일부에 나오는 것처럼 ‘청소년 성소수자운동의 원년’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활동의 힘을 쏟았다. 2월 26일 2005년 동성애자인권연대 총회를 시작으로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일상사업, 기획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보자.

동성애자인권연대 CMS 도입

드디어 동성애자인권연대 재정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CMS를 도입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의 활동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2006년 100명이 넘는 CMS 후원회원, 회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권리찾기

- 3월, 4월 ‘모두를 위한 교육’ 프로젝트 시작 - 청소년 성소수자, 전문가 간담회 진행
- 8월 27일 연세대에서 이반검열 상영 및 청소년 성소수자 억압의 현실 그리고 대안찾기 토론회 개최
- 9월 23일 시민들이 알아야 할 성소수자 인권지침서 ‘Happy Together’ 발간 및 성정체성 인식전환과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한 1차 거리 캠페인 진행 (서울역 광장)
- 10월, 11월 예비교사들과 함께하는 동성애 워크숍 진행 한국교원대, 고려대, 경인교대, 한양대, 단국대
- 10월 15일 2차 거리 캠페인 -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 11월 2일 3차 거리 캠페인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11월 20일 ~ 27일 청소년 성소수자 Pride Party
- 11월 30일 성정체성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모두를 위한 교육’ 홈페이지 (lgbtpride.or.kr/edu4all) 오픈 및 ‘모두를 위한 교육’ 프로젝트 완료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활동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는 올해 동성애자인권연대와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활동에 힘을 쏟았다. 홈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상담의 사례들을 모아 이후 상담 활동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2월에 걸친 성소수자 전문 상담인 양성 교육은 올해도 진행되었다.

3월 27일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홈페이지

lgbtpride.or.kr 오픈

6월 19일 ~ 7월 24일 성소수자 전문 상담인 양성을 위한 교육

나누리 활동

HIV/AIDS인권을 위한 나누리+는 동성애자인권연대가 펼치는 연대활동이며, 올해 하반기 여러 감염인 단체 인권사회 단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에 맞선 활동을 벌였다.

2월 25일 인도특별법(Trip's) 철폐를 위한 국제공동행동 참여

11월 22일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폐를 위한

질병관리본부 앞 기자회견 및 연대

11월 25일 HIV/AIDS 감염인의 의료접근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 참가

12월 4일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철폐를 위한 진정한

모집 캠페인 - 2005 민중대회

12월 5일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철폐를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성소수자운동 진영 연대활동

세계노동절 성소수자 참가단

4월 30일 ~ 5월 1일 세계 노동절을 맞아 성소수자 참가단을 구성하고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친구사이와 함께 공동으로 노동절 전야제 가관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퀴어퍼레이드 성소수자 참가단

6월 5일 2005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성소수자 참가단

을 구성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펼쳤다. 6개 무지개색으로 성소수자 노동권 / HIV/AIDS의 잘못된 인식들 / 동성결혼 / 학교내 벌어지는 청소년 이반검열 / 동성애 억압없는 다른 세상을 향한 목소리 / 트랜스젠더로 섹션을 구분해서 200여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종로거리를 행진했으며, 큰 반향과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MBC 뉴스투데이 ‘현장속으로’ 10대 이반관련 하위보도 대응 활동

7월 25일 MBC 뉴스투데이 ‘현장속으로’ 10대 이반 관련 하위보도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 중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이 활동은 성소수자 운동진영의 공동행동의 중요성과 연대활동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상활동 및 기획행사

4월 17일 열린인권포럼 ‘장애 동성애자에게서 듣는 삶의 이야기

4월 20일 장애차별철폐 행동의 날 참가

4월 23일故 윤현석, 오세인 추모의 밤

5월 21일 열린인권포럼 ‘커밍아웃’ 친구사이와 공동주최

6월 23일故 김선일 1주기 추모 반전행동

7월 29일 ~ 7월 31일 2005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9월 24일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3대 파병국 국제 공동행동

9월 30일 시카고 신학대 테드 제닝스 교수 간담회

11월 16일 ~ 17일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고 동성애자 억압하는 이라크대 부시반대 동성애자 참가단 부산행동 참가

12월 4일 2005 민중대회 참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7주년 기념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주최하는 인권난장 참가 및 캠페인

자료집 발간

2004 쟁점과 토론 자료집 / 성소수자 전문 상담원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집 / 2005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말한다 / 성소수자 인권지침서 ‘Happy Together’



Bush Lies!! People Die!!

Bush Lies! People Die!

Bush Lies! People Die! 2004년에 개최된 태국 국제 에이즈 컨퍼런스에서 HIV 감염인들이 부시의 에이즈 긴급구호 계획을 반대하며 외쳤던 구호다. 부시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ABC (Abstinence : 회피 Being Faithful: 충실, Condom Use : 콘돔사용)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순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파트너에게 충실함, 그리고 콘돔사용도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ABC 정책은 낙태를 인정하지 않는 곳, 콘돔이 아닌 순결을 통해 에이즈를 예방하는 곳, 저개발국이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카피 약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곳 등 부시의 입맛에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다. 또한 콘돔사용에 대한 강조도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등 고위험군으로 정한 이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시 행정부의 에이즈 기금 1/3은 절제 프로그램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긴급구호 계획의 이디오피아 파트너는 초보수적인 이디오피아 정교회이고, 2004년 태국 컨퍼런스에서 우간다 대통령은 콘돔사용을 비난하였다가 거센 항의와 비난을 면치 못했다. 부시는 에이즈로 인한 빈곤퇴치에 앞장서고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자신에 입맛에 맞지 않거나 정작 지원이 필요로 한 곳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총알 한 발에는 6달러! 주사는 3달러!

전 세계 4000만 명의 HIV 감염자 중 600만 명에게 에이즈 치료제가 필요하지만 560만명이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APEC에 참여하는 몇몇 나라에서의 에이즈 확산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치료제가 없어 감염인들이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특허권으로 인해 자신의 생계비보다 몇 배 혹은 몇 십배 비싼 약값을 지불할 수 없어 구경조차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칠레에서 개최된 APEC회의는 '에이즈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위선이다. 2005년 부산 APEC회의의 핵심 7대 과제 중 하나는 의약품을 다루는 다국적기업들의 이윤만 쟁겨주는 '지적재산권 단속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APEC이 제안하는 보건정상회의에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의 목록이 가득하다. 부시는 집권기간 300억 달러를 에이즈 확산 방

HIV/AIDS 감염인, 동성애자의 이름으로 부시방한 반대한다!

11월12일에서 19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회의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제아래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1개국 정상들은 18-19일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 모였으며, 한국정부는 APEC이 한국경제 성장에 큰 이바지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지 않았던 그 목표는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APEC은 빈곤과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이며, HIV/AIDS 감염인과 동성애자,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므로 자신들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APEC회의에 항의하기 위해 전쟁과 빈곤을 확산하고 동성애자 억압하는 아메리칸 부시반대 동성애자 참가단을 구성하고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부산행동에 참가하였다. 특히, 전쟁과 빈곤을 불러일으키는 선풍장 부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동성애자들의 행동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부산에서 뿌려진 동성애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전단과 그 후기로 엮어졌다.

지와 치료에 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집행된 돈은 2억 달러에 불과하다. 오히려 미국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2700만 미국인의 의료비 부담을 이라크 전쟁 비용에 쏟아 부었다. 10만명의 이라크 민중이 학살당했고 더 많은 학살을 위해 올해만 82조원의 추가 전비를 승인받았다. 그 바람에 뉴올리언스의 가난한 흑인들은 매죽음을 당해야 했고 전 세계 감염인들은 부시의 거짓말에 두 번 죽고 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지구적 연대에는 아주 인색한 반면 이라크인의 주권과 생명을 빼앗는 파병 비용에는 수천억 원을 쏟아 부었다. 에이즈 환자 치료를 위한 글로벌 펀드에는 단지 3억 원만 지원했을 뿐이다. 3억 원이란 금액은 미국의 일개 자선단체들이 기부한 정도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는 수만명을 죽이는데 돈을 쓸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약을 못 먹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데 수천억 원을 써야 한다.

동성애자 인권을 유린하는 부시방한을 반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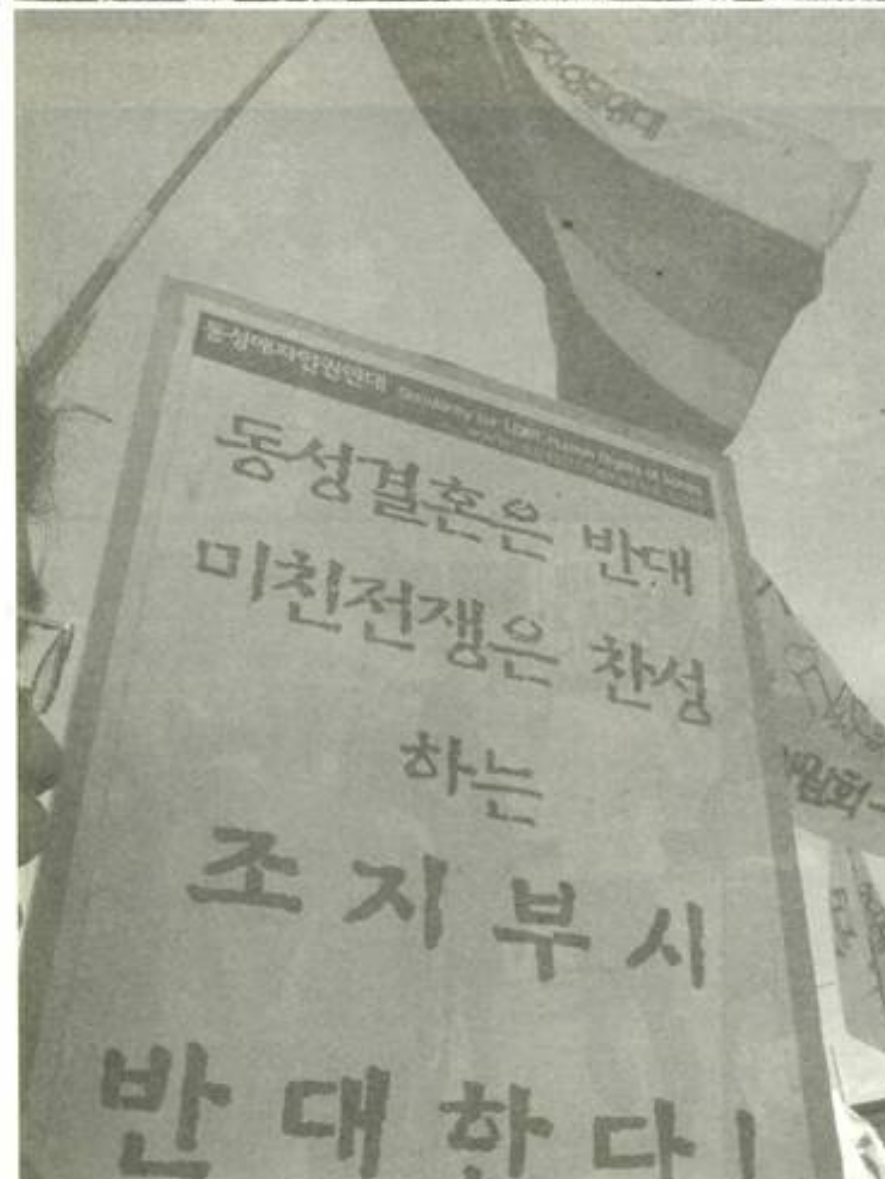
지난 200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의 주요 쟁점은 이라크 전쟁, 경제 그리고 '도덕적 가치'였다. '도덕적 가치'라는 모호한 단어는 동성결혼, 낙태, 줄기세포 연구, 안락사 같은 미국 사회의 첨예한 논쟁거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부시는 대선 전부터 '동성결혼, 낙태 등 주요쟁점에 대한 반대'를 확고히 하였으며 그것은 부시재선에 큰 역할을 했다. 더 나아가 집권 2기 내 미국 50개주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도록 연방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시간, 오크하임, 텍사스 등 19개주에서 동성 결혼 금지를 위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다) 그동안 동성 간 세속 결합이 허용되었던 오리건 주의 경우 1년 전 결혼 허가를 받은 3000쌍 커플을 무효화하였고, 뉴멕시코주의 경우 결혼을 이성간 결합으로 규정한 법안을 가결한 상태이다. 또한 부시는 성교육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보수적이다. 텍사스, 알라바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시시피, 아리조나의 경우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유타주의 경우 동성애와 관련된 정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반동성애 정책을 펴는 이는 부시만이 아니다. 일본판 네오콘이라 불리는 극우주의자 고이즈미는 지난 해 이란 동성애자의 사망신청을 거부했다. 이란이 동성애자라는 성정체성이 밝혀졌을 때 사

형에 처해지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잔인한 조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하워드 총리도 동성결혼과 동성 간 커플이 약이를 입양하는 것 자체를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침묵, 방관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APEC 기간 상호 간 경제협력을 위해 부산에 모인다는 것이고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를 지지, 지원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전두지휘하는 부시의 방한을 그 누구도 반기지 않고 있다. 반환경, 반여성, 반인권의 상징으로서의 부시. 그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기업들의 배만 불리우고 민중의 삶은 철저히 외면하는 정책이다. 더 많은 HIV/AIDS 감염인들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박탈당한 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지속되는 한 그것과 맞물려 돌아가는 신보수주의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다. 가족과 전통에 대한 가치의 강조로 그에 반하는 동성애자들은 움지로 물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하나의 공동체' 그 거창한 구호 이면에는 파탄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중의 삶만이 덩그러니 남겨있다.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

가장 가난한 땅에서 HIV/AIDS는 넘쳐나고 있지만 부시를 비롯해 APEC에 참석하는 정상들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 있고 그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 부시는 이라크 수렁에 빠진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하지만 방문하는 국가마다 민중들의 반대행동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4년 칠레에서 개최된 APEC 회의 때 부시는 자신의 방한을 반대하기 위해 모인 7만 민중과 마주쳐야 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APEC에 참석하는 부시방한을 반대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 여성, 환경운동가, 인권운동가 등 다양한 운동세력들이 부산에 모일 것이다. 우리 동성애자, HIV/AIDS 감염인들도 부시의 위선적인 AIDS 정책과 반동성애 정책을 폭로하고 부시의 방한을 절대 반기고 있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더 나은 세계와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3만 명이 모인 거대한 저항의 공간에서 무지개 깃발을 날리다!

反아력, 反부시 부산행동 후기 _ 권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동성애자인권연대는 11월 초부터 전쟁과 빈곤을 확산하고 동성애자 억압하는 아력 반대, 부시반대 동성애자 참가단을 모집했다. 그리고, 16일 부산 행동과 관련해 열린 포럼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아력의 실체에 대해 파헤치고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정책을 선봉에서 수행중인 부시의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80년대 가족주의를 부활시키기 위한 레이건 정부의 노력이 에이즈 이데올로기로 동성애자들을 공격했다면, 부시는 보수 기독교들의 힘을 빌려와 동성결혼을 공격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뒤집으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포럼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포럼 후 우리는 18일 국민행동 사전집회와 본 집회에서 사용될 피켓을 제작했다.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들과 회원들의 목소리를 더해 '총알은 6달러! 주사는 3달러! HIV/AIDS 감염인 다죽이는 아력을 반대한다!', '동성결혼은 반대, 미친 전쟁은 찬성하는 조지 부시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피켓에 담았다.

동성애자 참가단은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회원들과 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깃발, 피켓, 1,000부의 전단을 들고 11월 17일 저녁 11시에 서울에서 출발하는 저항의 버스를 이용해 부산으로 내려갔다. 차디찬 겨울 밤공기를 들고 부산으로 향하는 기분은 즐거움 반, 두려움 반이었다. 몇 만이 모여 기독교에 향해 거대한 저항의 행동을 한다는 경험이 무척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앞섰으나, 몇 일전 여의도에서 농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탄압을 받고 농민 한분이 사망했다는 소식과 부산에는 여의도에서 보다 더 많은 전경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가로 막을 것이라는 소문 아닌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부산대에 도착 후 우리는 숙소를 잡기 위해 택시를 타고 부산 해운대 근처 여관이 많은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골목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 근처에 정상들이 모여 있는 호텔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들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기위해 내심 택시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새벽 4시 경 여관을 잡고 우리는 다음날 행동을 기약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11월 18일 오전, 동성애자 참가단은 부산대로 향해, 저항의 버스탑과 합류했다. 저항의 버스탑은 조가 편성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분들과 한조를 이뤘다. 그 이유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분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과 즉시 바로 강제출국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조는 버스를 타고 사전 집회가 진행되

는 부산 한 시내로 출발했다. 부산 시내로 버스가 진입을 하자, 경찰은 테러를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버스를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버스를 막았다. 우리를 비롯해서 뒷 버스에 노동조합 형님(?)들이 무더기로 내려 경찰에 항의를 시작했고, 트럼프만 조사하며 경찰은 뒤로 빠졌다.

사전집회 참여 후 국민대회를 하기위해 행진을 시작했을 때는 환호의 연속이었다. 동성애자 참가단은, 저항의 버스 참가자들과 피켓을 나눠주고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해운대 백스코로 향했다. 다른 곳에서 사전집회를 마친 대오와 만나면 더 큰 합성으로 서로를 격려했으며, 부산 시민들은 이러한 환호성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박수를 치는 시민들,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시민들도 보였다. 우리는 행진 중 행진대오를 고무시키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청소년 3명이 대오를 따라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으며, 화성기를 가져다 주자, 아력반대! 부시반대!를 외치며 행진대오의 구호를 지도하기도 했다.

부산 해운대 백스코 진입도로에서는 거대한 3만의 행진 합성이 모여들었다. 이 합성은 바로 저 너머 백스코에서 전쟁과 빈곤을 확대시키는 자들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백스코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빈 컨테이너에 부딪혔지만, 참가자들은 전경들이 뿌리는 물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컨테이너에 줄을 묶어 쓰러트렸다. 아력 반대 부시 반대의 저항이 저들의 바리케이트를 무너트린 셈이었다. 그 자리에서 국민대회가 진행되면서 동성애자 참가단이 준비한 전단을 나눠줬다. 1,000장의 전단이 부산행동에 참가한 모두에게 전달되지는 못했지만, 동성애자들이 부산 행동에 참가했다는 것을 무척 의미있고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국민대회에서 부산여성성소수자인권센터 활동가를 만날 수 있었다. 긴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참가단 조직과 활동에 대해 보았다는 그 활동가의 이야기는 참가단에게 큰 힘이 되었다.

국민대회 후 전경이 밀어 들어오는 바람에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백스코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거대한 저항은 세계화로 진입하는 거대한 축제라고 떠벌였던 노무현 정부를 컨테이너 바리케이트 안에 가두고 그들만의 치졸한 세계화를 모색하게 만들었으며, 저항의 목소리에 벌벌 떨며 빈손으로 돌아간 아력 정상들의 침통한 얼굴을 보며 부산 행동의 의미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었다. 추운 겨울 함께 행동한 참가단과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동성애자인권연대에 그 성과를 돌리고 싶다.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권리찾기를 위해 노력한 한 해”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2005년 한 해 꾸준히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였다. 8월에는 '청소년 성소수자 희망찾기'란 주제로 청소년 성소수자로서 겪는 이중 삼중의 억압과 고통, 그리고 커밍아웃했을 때 위험한 노출에 놓인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해 대안을 찾아보고 고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그리고, 사법대성을 대상으로 한 “예비교사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반대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그 밖에 “청소년 성소수자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예비교사와 함께하는 워크숍”

인터넷등 수많은 정보들로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찾아가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회와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규정하고 성적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거나 자신만의 문제로 덮어버리고 혼란스런 청소년기를 보낸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동성애는 청소년기 때 올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쯤으로 가볍게 치부해버리거나, 힘들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아도 주변에서는 다시 이성애자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고쳐주려 노력하는 모습이 청소년 동성애자를 둘러싼 현실이다.

하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혼란스런 자신의 성적정체성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줄 수 있는 주변을 애타고 찾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 이나마 해결하고자 청소년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공간인 학교(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닌다.) 특히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을 진행하였다.

많은 예비교사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동성애를 둘러싼 여러 가지 편견을 깨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고 성소수자들 더 나아가 소수자들에 대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교육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된다면 이후 교육 현장에서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소수자의 차별 반대 캠페인 Happy Together”

동성애자인권연대는 9.24 서울역 광장, 10.15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10.22일 인천 부평역, 11.2일 중앙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성소수자 차별 반대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2003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상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를 위한 거리 캠페인 이후 동성애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여전히 이사회에서 동성애자를 에이즈의 주범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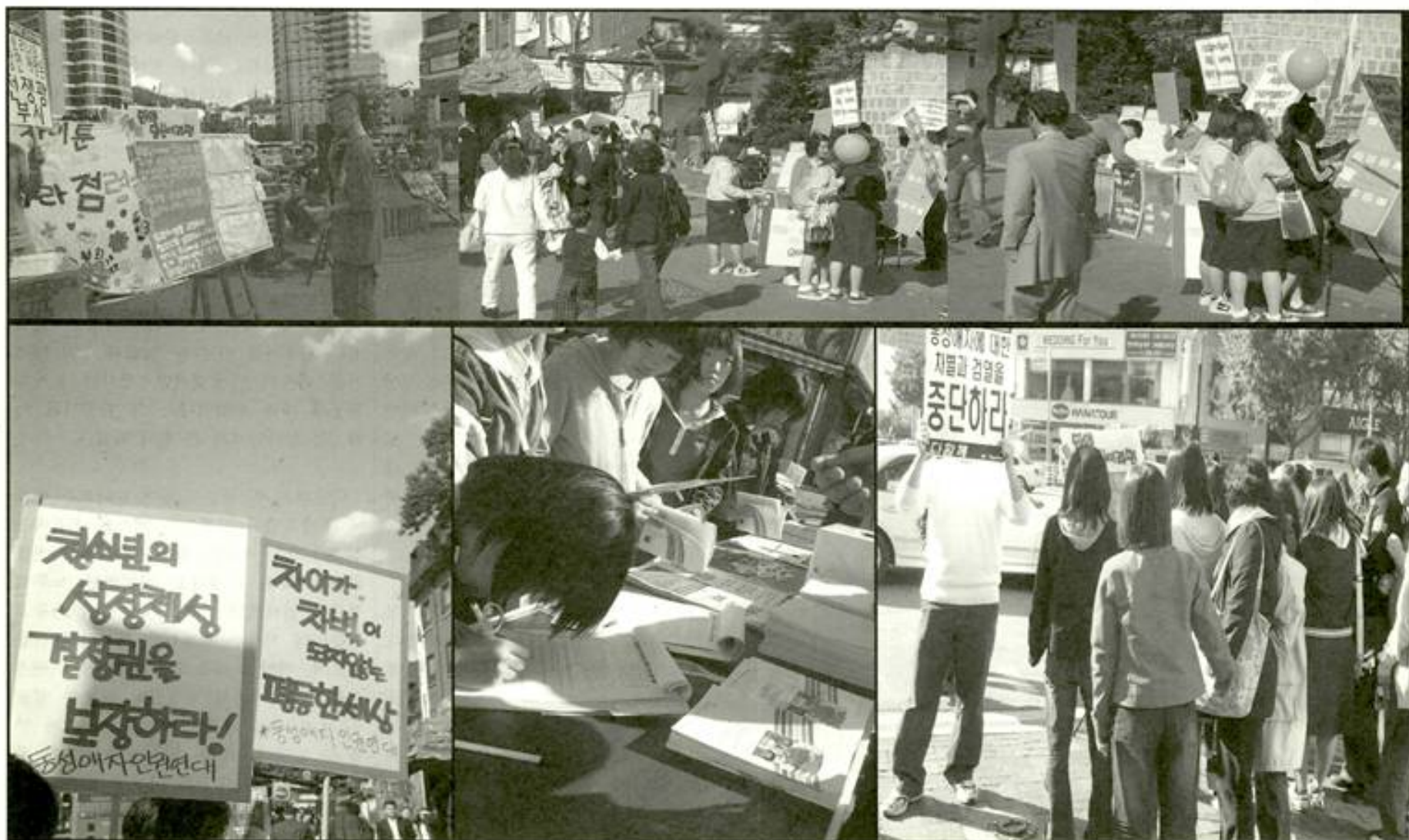
그래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정체성이 밝혀졌을 때 오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학교내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 동성애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된 캠페인이었다.

동성애자 차별에 반대하는 인권지서서명에 총 279명이 서명하였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인권지침서를 총 700부가 넘게 배포하였다.

동성애자 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직접 같이 참여하고 방어해준 많은 이성애자들과 아웃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차별에 반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동성애자들에게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를 드린다.

LGBT paper



성소수자 차별반대 캠페인 "Happy Together" 참가자 후기

한양대학교 영어 교육과 진영

처음에는 관심보다는 무관심이었다. 또한 단순한 무관심에 약간의 호기심이 앞섰다. 가끔 언론과 매체에서 보여 지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나 스스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적대 심 같은 것을 가져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내 머리 속 깊숙이 자리 잡은 그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는 '나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었고, 이번 경험은 그러한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 주었다. '다르다'라는 말 자체는 단순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의 사고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이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라는 단체를 우리 조의 방문 대상으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나는 우리 사회의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맞닥뜨려야 했다. 처음 딸이 찾아갈 단체에 대해 들으신 어머니의 반응은 '왜 하필 거기니?' 하는 것이었다. 무심코 하시는 어머니의 한 마디에 내 맘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들이 조금씩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집회에 참여하는 동안 사람들

이 나를 동성애자로 오인하지는 않을까? 방 송이나 매체를 통해 내 얼굴이 보도되거나 하면 어찌지? 하는 생각들이 내 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서울역 부근의 동인연 사무실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그러한 생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크지 않은 규모에 상주 인력도 없는 허름한 사무실, 한 눈에 단체의 재정이나 활동 등이 그다지 풍족하거나 여유롭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 한 쪽 벽면에 걸려 있는 레인보우 기외에는 어느 사무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더구나 직접 만나 본 동인연 회원들의 모습은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은 채, 지극히 평범했다. 항상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밝고 친절한 모습들에 내 맘속의 '다름'에 대한 두려움들이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음을 느꼈다. 오히려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회원들의 모습에 왠지 모를 측은함과 미안함이 앞섰다.

본격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면서 처음의 내 태도는 점점 더 변해가고 있었다. 편견을 들고 있는 것이 왠지 모르게 어색했던 나는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호응해주는 몇몇의 시민들을 보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시작한 일인

만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았고, 짧은 시간이나마 동인연 회원들로부터 받았던 평범함에 대한 안도감이 이전에 가졌던 부담감을 없애주고 있었다.

LGBT paper

청소년 '다함께' 회원 하림

10월 15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 앞에선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여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최근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반검열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것으로 청소년 다함께 또한 참가하여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이날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스피치를 하고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날 전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78년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율이 이성애자 청소년들보다 무려 십 배가 높게 조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 위주의 사회에서 쉽게 고립되기 마련이며, 성인에 비해 많은 것을 제약받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배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지난 2003년 한국에서 한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이 있었습니다. 큰 충격을 준 이 사건으로도 보아 우리는 극단으로 내몰린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성적체성은 보통 부정되고, 어른이 되면 자연 나아질 한 종류의 열병으로 보여 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적체성은 개인이 치열히 고민하고 온갖 절망과 고립 속에서 이루어 낸 것이며, 한 인간을 구성하는 당연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성적체성에 상관없이 차별을 반대해야 하며,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모든 성소수자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이성애자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사회의 소수를 억압하는 지배계급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해방은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LGBT paper

예비교사와 함께하는 동성애 워크숍 강연 후기

장 권 -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지난 10월부터 11월 후반까지 한국교원대, 고려대학교 사범대, 경인교대, 단국대학교 사범대 등 교대, 사범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사와 함께하는 동성애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은 워크숍 강연자들의 모임을 통해 강연의 형식을 만들어갔다. 그동안의 동성애자인권연대 강연들이 발제 후 질문자들의 질문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곤 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강연자들이 성소수자들에게 갖는 편견을 강연 참가자들에게 물어보고 그 대답들 속에 문제점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강연의 형식을 바꾸었다. 또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실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실제 사례들을 풍부하게 알려주는 것을 강연에 포함시켰다.

예비교사 워크숍 중에서 나는 경인교대, 단국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예비교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동성애, 동성애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동성애는 어렸을 때 안 좋게 때문에 발생한다? 동성애는 에이즈 전파

의 주범이다? 동성간 결혼이 허용된다면, 우리나라 가족은 붕괴될 것이다?하는 질문을 참가자들에게 던졌고, 그 답변들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흥미로운 부분은 2년 전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진행한 총 10개 학교의 강연을 통해 보여 지던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 편견들이 일부분 사라진 점이다. '동성애는 인간 본성, 종족 번식의 능력에 반한다' 라던가,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성경 문구를 이야기하며 신이 금지한 사람인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등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라면, 이번 강연들 속에서는 실제 동성애자들의 삶과 학교 직장 내에서의 차별의 현실들에 대한 궁금증을 보이는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예비교사로서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커밍아웃하는 학생을 대하는 방식이나, 성적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생과의 상담, 상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궁금증과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올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권리 찾기를 활동의 주된 목표로 설정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교사들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판단, 행동들도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편견에 따른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권리 찾기에 가장 큰 친구가 되어줄 교사의 역할을 중요시 하면서, 예비교사와 함께하는 동성애 워크숍은 기획되고 진행되었다.

워크숍을 진행하고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이 가졌던 편견, 교육현장에서 학생들, 혹시 있을지 모를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들을 배웠다라는 평가는 이 워크숍이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에 큰 성과로 남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워크숍 등의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구성되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의 목표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LGBT paper



에이즈 편견을 조장하는 영화 "너는 내운명"

윤호제 _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 대표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쫓았다"는 영화 <너는 내 운명>을 보기 전부터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다. 그간 영화를 비롯해 온갖 미디어들이 에이즈란 질병을 편견에 가득 찬 시선으로 다루고 있다는 걸 익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의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는 이 영화가 그런 편견을 깨줬으면 한다는 작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개봉을 하면 꼭 보리라 마음먹고 있었는데 마침 HIV/AIDS 감염인 단체, 예방단체 등 에이즈 관련 단체들이 가진 비공개 시사회에 초대됐다.

이 영화는 2002년 여수에서 HIV에 감염된 여성이 성매매를 하다 구속된 실제 사건을 극화한 작품이다. 당시 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마녀사냥식 사실왜곡과 여론호도에 경악했던 나로서는 애초부터 이 영화를 편한 마음으로 볼 수는 없었다. 영화는 순박한 '농촌 총각'과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는 '다방 여종업원'의 슬픈 사랑과 이별, 그리고 사회의 편견에 대한 싸움을 나름대로 담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 심기가 불편해진 건 여주인공의 감염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의 편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영화 후반부부터였다.

실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기자들이 몰려들면서 주인공들이 살던 지역은 에이즈 공포에 휩싸였다.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에이즈 검진을 받는 동네사람들, 여주인공과 성관계를 맺었을 거라 짐작되는 한 트럭의 군인들, 심지어 보건소 직원까지. 당시에 그런 호들갑을 떨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영화는 지역주민들의 무지스러운 행동을 과장되게 그리기 시작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공포를 조장한 언론의 역할이 더 컸음에도 말이다. 여주인공을 그래도 사랑하며 같이 살겠다는 남주인공을 향해 "미쳤나?"며 "에이즈는 당장 죽을 병"이라고 만류하는 보건소 의사는 의사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몇 년 전부터 에이즈는 치료가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진화하여 의료계에선 이미 만성질환으로 보고 있다. 감염인을 일선에서 관리한다는 의사의 입을 빌려 나온 이 말은 에이즈에 대한 감독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다.

구속된 여주인공이 감옥에서 홀로 거울을 보다 피부에 붉은 반점들이 번지며 흉측한 물결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장면에서는 어느새 "지겨워"라는 말이 내 입속을 맴돌았다. 미디어들이 흔히 다루는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정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이즈에 감염되면 피부에 나타나는 붉은 반점이다. 물론 서구의 HIV 감염인들은 체질 탓인지 그런 반점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하고, 아프리카 감염인들은 위생환경의 문제로 유독 피부질환에 시달린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등 동양인들은 그런 붉은 반점들이 거의 안 나타나고 내가 본 많은 말기 환자들도 거의 그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미디어들은 왜 그러도 HIV/AIDS 감염인들의 피부에 집착할까? 아마도 에이즈란 질병이 가지는 혐오스러움과 공포를 표현하는데 붉은 반점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에이즈에 대한 혐오스러운 상징이 그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감염인들까지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감독은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실화의 주인공들이 어떤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영화는 실화의 본질은 비켜간 채 단지 남성 중심의 사랑을 다루면서 "그래도 좋아"라는 동정심에만 초점이 맞춰져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 남주인공은 '에이즈까지도 받아들이는' 무한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여주인공은 단지 그런 남성에게 '사랑받는' 대상일 뿐이다.

당시 실화의 주인공은 콘돔 사용을 거부한 남성 성 매수자에 의한 피해 여성이었음에도 가해자로 몰려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만 했다. 성을 산 남성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남성들은 깨끗한(?) 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 여성에게 저주에 가까운 비난만을 퍼부었다. 누구하나 그 여성에게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다. 실화 속의 두 주인공이 이 영화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의 그 악몽을 다시 떠올리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LCBT paper**

고마워요,
사랑해줘서...

너는 내운명

무슨일이 있어도
그녀를 끝까지 책임지겠음

너는 내운명



LGBT paper의 '독자편지'란은 독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lgtpride@empal.com 으로 머리말 [독자편지]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총부리를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 파병연장과 반전에 관련하여

동인연 회원 옥

날씨가 한층 추워집니다.

겨울 준비에 여념 없는 자연은, 오늘도 조용히 공기를 낚설게 식히고, 낙엽은 하나둘씩 제 역할을 다 한 채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저릿하게 스며드는 스산함의 공기가 마음을 모질게 합니다.

날씨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 가슴에 밝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와 멀리 떨어진 저 이라크의 소식들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큰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질러 두 개의 큰 빌딩을 뚫었을 때 사람들은 무너지는 빌딩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죽은 사람들을,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또 그 사람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반인륜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가슴깊이 새기었습니다.

2년 후.

너무나도 처절한 복수가 바그다드에 떨어

졌을 때의 그 끔찍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빌딩 속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런 복수는 맞지 않았습니다. 테러를 없앤다는 명목하의 전쟁은 허울 좋은 이야기였고, 그 허울 안에 감춰진 미국의 진실은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영화 속 장면 같은 폭탄 투하의 장면은 우리에게 그제 화면으로 스치겠지만, 이라크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살아오고 가꿔온 터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가족, 이웃이 불구덩이에서 죽는 모습을 그들은 잊을 수나 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이라크의 국민들은 끊임없는 제탈라 전투를 했고, 세계는 미국의 야욕을 지탄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의 불빛들이 이라크에서의 미국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리석은 전쟁이 이제는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때의 일을 떠올리며, 이라크에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물러난다 해도 이제껏 가져 온 미국의 중동에서의 지배력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미국은 자신들이 안전하게 후퇴할 방패막이를 찾고 있는 셈이지요. 그 방패막이가 우리 한국 파병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우방으로서 우리는 3대 파병국의

하나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재건이라는 명목 하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라크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재건을 위해 왔다고 생각할까요. 미국의 친구처럼 보이는 한국에게 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올까요. 그들은 아마 한국을 자신들의 땅을 부수고 자신들을 짓밟는 미국만큼이나 한국을 싫어할 겁니다. 우리의 한국 파병군은 그렇게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이라크의 상황으로 봐서 한국 파병군은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일으킨 전쟁에서 우리 한국군이 목숨을 내 놓으며 그들의 전쟁을 정당화 해주어야 하는 걸까요.

미국의 이권을 위한 경제주의 원칙들은 우리에게도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미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국가에 인력을 생산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동성애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약마저도 경제원칙에 따라 비싸게 팔려고 애쓰면서, 에이즈는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즈를 세계의 가장 큰 질병인 것처럼,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질병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당연히 맞서야 합니다.

반전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미국이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에 우리는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돈이 사람보다 우선시되고, 자신들의 권리만이 소중한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인권도 또 돈 없는 후진국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행위들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역사에서 또 한 번 뼈저리게 아픈 상처를 안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그 상처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혹은 우리가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우방으로서의 위치를 위해서 겨누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총부리가 그들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상처는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을 주겠지요.

4대 문명의 발상지로 역사의 영화(榮華)로 온 장면들을 담고 있던 이라크의 바그다드가,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까 유난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고향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크고 있을 이라크의 아이들이 다시 한 번 눈물겹게 다가옵니다.

돌아올 총부리입니다. 우리가 겨누고 있는 총부리를 이제는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LGBT paper

학내 공간에서의 커밍아웃 경험과 동성애 비하적 강의내용

자료제공 - 중앙대 이반모임 레인보우퍼쉬

중앙대학교 이반모임 레인보우퍼쉬는 2005년 학내 퀴어문화제의 일환으로 회원들에게 몇 가지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5일부터 30일 까지 시행된 이번 설문조사에 회원 40명이 참여하여 커밍아웃에 대한 경험과, 동성애비하적 강의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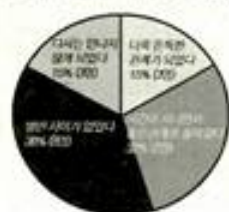
1. 대학교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한 경험 있으십니까?



커밍아웃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대학교 전학 이후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한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아직까지 동성애가 금기시 되는 사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깊은 관계를 가질 시간

이 짧은 대학교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나머지 절반은 몇 명에게나마 커밍아웃을 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긍정하고 학교 동성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커밍아웃 경험이 있는 대학생 동성애자의 비율은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회원은 대학교 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진출 후에도 자신의 직업과 관련되어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되므로 중 고등학교 때 친구들보다도 커밍아웃 하기가 훨씬 힘들다고 대답했다.

2. 학교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한 이후 둘 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커밍아웃을 한 이후 관계에 대해서는 경험자인 21명이 답변을 해 주었는데, 불편했으나 괜찮아지거나, 그냥 똑같았다는 의견 오히려 좋아졌다는 대답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에게 정발

소중하고 커밍아웃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친구에게만 커밍아웃을 시도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기타 의견으로 '심지어 적이 된 적도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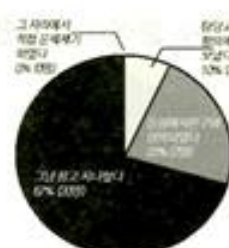
3. 학교 강의 중 교수의 발언과 학생들의 발표에 포함된 호모포비아적 발언으로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신 일이 있으니까?



강의 중 동성애자비하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선 4분의 3의 회원들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내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교수가 강의 중 동성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이성애 중심주의적인 발언과 강연으로 동성애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은 흔히 알려진 일이다. 동성애자 대학생들은 자신의 얼굴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여성학 강의를 맡은 교수가 동성애의 원인설 및 문란한

성생활을 언급하는 등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수업으로 자신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어 동성애자 사회에 나오기까지 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 회원이 전해왔다.

4. 호모포비아적 발언을 들은 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였습니까?



그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는 총 30명이 대답하여 주었다. 그냥 참고 지나쳤다는 의견이 3분의 2를 차지해 문제제기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동성애자 당사자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세 명의 응답자는 교수에게 직접 항의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어떤 회원은 레포트를 자신의 의견을 쓰기도 하였는데 그런 경우에는 점수가 안 나왔으며 추천할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의견을 남겨왔다.

LGBT paper

인권운동과 나

정권 - 동성애자 인권연대 회원

문득 문득 생각할 때가 있다. 내가 동인련에 발을 들여 놓지 않았더라면 과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이제 겨우 가입한지 세달 남짓임에도 불구하고, 동인련에 속해 있지 않은 나를 상상하기란 조금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7월의 어느 새벽, 갑작스럽게 동인련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다음날 무작정 동인련 사무실을 찾았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무언가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무엇이 나를 그토록 결실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전에 없는, 매우 격양된 어조였다고 기억된다. 왜 그랬을까.

그 무렵 나는 몇몇의 이성애자 친구들에게 커밍아웃도 한 상태였고, 그들의 반응도 호의적인 편이었다. 또한 몇 명의 친한 이반 친구들과 절친하고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는 뭔가 "결핍된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였고, 그 "결핍된 것"은 매 순간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내가 동인련을 그렇게 충동적으로 찾게 만든 원동력은 바로 그 "결핍된 어떤 것"을 찾고자 하는 물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렇다.

석 달 남짓의 동인련 활동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결핍된 것이 적어도 나 개인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이 땅에 살아가는 이반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숙제라는 것이다. 이성애자 중심의 사회 안에서 철저히 소외 받고 자라나,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결국 굴러 떨어지는 곳은, "소수자"이며 "이성애자의 가면을 쓴 인생"인, 그런 운명을 지닌 사람들. 주류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부에도 속하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의 범주에 내가 속해 있었다. 결핍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숙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온몸으로 거부하고 싶었다. 그러한 숙명이 내가 청소년기에 고민했던 것처럼 단순히 "신의 저주"가 아니라, 그저 오랜 기간 퇴적된, 그것도 "복잡한 정치적 이유"에서 영원한 "불합리한 억압" 때문이었다면 더욱이 그랬다. 그 거대하고 검은 억압이 얼마나 집요하고 계획적인 것인지, 석 달간의 짧은 경험을 통해 이미 깨달았다. 그리고 아무리 상대하기 벅찬 어떤 것이라 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함께 깨달았다. 내가 느낀 결핍은 결코 내가 어딘가 모자란 사람이어서 느낀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주류 언론이 빚어 놓은 허상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한 불의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져오게 될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 오십대가 되어서도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자신이 그런 삶의 끝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운명은 "신의 저주"가 아니라 신이 나에게 내어준 "인생을 걸쳐 풀어내야 할 숙제"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내가 이 숙제를 푸는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하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설사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숙제를 풀어나가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비록 아는 것이 없고, 치기어리며, 미숙하기만 한 나지만 동인련의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운동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은 일 일지라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여름날, 그렇게 무작정 동인련을 찾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도 실체를 알 수 없는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인련에 속해 있지 않은 나를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 나는 동인련을 통해 좀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짊어지고 온 나의 무거운 숙제를 발 앞에 내려놓고 살펴본다. 동인련의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매우 멋지고 당당하게 그 숙제를 해결하고 말 것이다. 자신, 있는 일이다.

LGBT paper

동성애자인권연대를 후원해주십시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당신의 관심과지지 그리고 후원으로 힘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 단체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에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동성애자를 향한 억압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정기적인 후원은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정기, 비정기후원 : 매월 1구좌 (10,000원) 이상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후원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42601-04-000151 예금주 : 정을(동인련)

>> 동성애자인권연대 CMS 신청 :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약정액 (5천, 1만, 2만원, 기타) 0제일 (4일, 25일)을 lgbtpride@empal.com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MS 인출금액은 시민사회복지기금으로 통장에 작성됩니다.

CMS 신청자분의 신상은 사무국 재정담당이 관리하며,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 후원문의 : 02_778_9982, lgbtpride@empal.com

동성애자인권연대 10대 원칙



- 우리는 이 땅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된 모든 성 소수자들의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인권단체로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성적 불평등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현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 우리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 우리는 성 소수자들 내부에서의 모든 유형의 소외와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성적 지향성에 의한 차별을 비롯한 계급적, 계층적, 문화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
- 우리는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조직과 유지에 기여한다.
- 우리는 다양한 동성애자 문화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노동자, 여성, 이주 노동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난민, 아동, 청소년, 빈민 등 억압, 탄압, 소외된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 우리는 개인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 우리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한다.
- 우리는 동성애자 인권단체간의 연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모든 성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